

코로나에 희비갈린 지방금융그룹

BNK·DGB, 지역경제 악화로 울고
감염 적었던 호남 기반 JB 호실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경제를 강타하면서 지방금융그룹의 치명상이 현실화됐다. 몇 년간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또 한번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실이 지방금융의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 지방 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이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 BNK·DGB·JB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모두 32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35억원)보다 511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 기업 직격탄에 BNK·DGB 실적도...

BNK금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137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순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경남은행도 각각 874억원 474억원을 순이익을 기록해 22.8%,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GB금융은 1분기 8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156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은행도 78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0.4% (91억원) 감소했다.



(왼쪽부터)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사옥 전경 /각사

반면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JB금융은 1분기 96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대비 4.3% (40억원) 증가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296억원, 467억원의 순이익을 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실에 2분기 '더 어려워 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분기부터 지방금융의 희비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지방 금융의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BNK 부산·경남은행은 기업대출(47조4731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43조9446억원으로 92%를 차지한다. 이들의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2% (1조2349억원), 6.4% (1조1310억원) 포인트 증가했다.

DGB 대구은행은 기업대출 (29조

3128억원)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24조824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8.8% (1조9976억원) 포인트 증가했다. 대구은행이 대출을 진행한 주요업종은 제조업중 자동차 및 금속업종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도 15.4%를 차지했다.

◆ 건전성 관리 비상

이에 따라 지방금융은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1분기 BNK·DGB·JB 금융의 고정이자 여신비율(NPL)은 각각 1.08%, 0.98%, 0.91%이다.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평균 NPL비율(0.49%)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NPL비율은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NPL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NPL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4월 외환보유액, 석 달 만에 증가세

전월 말 대비 37억7000만달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개월 연속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달러화 강세에도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0년 4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39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7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4063억2000만달러), 11월(4074억6000만달러), 12월(4088억2000만달러), 올해 1월(4096억5000만달러)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2월 감소 전환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다시 늘어난 것은 미 달러화 강세에도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15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9억1000



/뉴시스

만달러 늘었다.

반면 미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은 감소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99.87)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맡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312억3000만달러로 5억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32억6000만달러로 6000만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IMF 회원국으로서 낸 출자금 중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인 IMF 포지션은 32억달러로 4억2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김희주 기자

'토스' 출시 후 첫 흑자...3년간 35배 성장

작년 영업수익 1187억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5년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월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토스의 영업 수익은 2016년 34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1187억원을 기록했다. 3년간 35배 성장한 수치다.

가입자 수 1700만명의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한 토스의 영업수익 83%는 제휴 금융 기관과 온라인 사업자를 기반으로 나오고 있다. 토스는 앞으로 이 비중과 규모가 더 커지면 본격적인 이익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스는 자체 플랫폼의 본격 성장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PG사업 진출로 모바일 금융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해당 분야에서 토스가 추정하는 전체 시장 규모는 52조원에 달한다.



특히 토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추가 비용 증가가 거의 없다. 손익 분기점 이후 매출이 대부분 순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토스를 통한 월간 송금액은 4조5000억원, 누적 송금액은 90조에 달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은행권 中企대출 8.4조 '통계 이래 최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작 이후 급증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증가액 61%
대기업 대출도 여전히 증가세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이 본격화되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463조929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4379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2015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달 소상공

인 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 1.5%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소상공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가 5조1219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1%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에게 나간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3월에도 2조7755억원이 늘었지만 4월에는 증가

폭이 2배로 확대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데다가 은행권도 이에 적극 부응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 증가세도 여전했다.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지난달 5조852억원 늘었다.

중소기업과 대기를 합친 전체 기업대출은 지난달 14조2432억원 늘어 전월 13조4568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다시 썼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624조6476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6595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소속 韓 근로자에 저금리대출 지원

KB국민銀,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KB국민은행은 오는 11일부터 한미 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중인 자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기존 상품 대비 최고 연 1.0%포인트 추가 우대를 제공해 최저 연 2.70%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방식 1년(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 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무급휴직 관련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서류(휴직 직전



년도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를 지참해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 종료 시기는 추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마을금고, 편의성 높여 스마트뱅킹 리뉴얼

새마을금고가 스마트뱅킹을 새단장한 'MG더뱅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MG더뱅킹을 통해 지문 및 얼굴 인식을 통한 로그인 및 인증, 공인인증서 제출의 최소화, 디지털 OT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인증 편의성을 높였다.

또 '간편패스'를 마련해 보안성은 높이면서 거래과정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간편패스는 간편비밀번호 6자리를 이용해 로그인, 이체, 간편출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간편패스 기반의 간편이체는 보안매체, 공인인

증서, 계좌비밀번호, 추가인증 없이 1일·1회 1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을 이미지로 저장·공유할 수 있으며 주변에 금고위치가 자동으로 검색되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

클립보드에 복사된 계좌번호를 붙여넣기 없이 이체하거나, 최근 이체된 계좌에 더 간편하게 이체하는 바로이체 서비스, 스마트폰을 흔들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모션뱅킹 기능을 탑재해 모바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누리 기자